

광주시 가족음악축제 입상 다문화가정에 상금 1220만원 50일 넘도록 안줬다

대행업체 행사대금 가압류 ... 말썽 일자 ‘월내 지급’

광주시가 주최한 가족음악 페스티벌에서 입상한 다문화가정에게 행사가 끝난 지 50일이 지나도록 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시가 대행업체의 부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면서 상금이 가압류됐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와 가족음악 페스티벌 수상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총 106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회 가족음악페스티벌 입상자 중 18개팀에게 시상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팀과 한가족팀(친인척 구성팀), 이웃사촌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대상 1개팀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등을 주기로 하는 등 본선에 입상한 12개팀 등 총

45개팀에 상금은 모두 272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선 입상 5개팀을 포함한 27개팀에만 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을 뿐 금상·은상에 입상한 다문화가족팀 등 18개팀의 상금 1220만원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입상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광주시가 자체조사에 나선 결과 행사 대행 이벤트업체가 세금이 밀려 상금이 포함된 행사대금이 가압류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총 행사대금 1억5600만

원 중 93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상금 용도 등으로 잔금 6300만원을 업체에 내려 보내야하는데 잔금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대행업체가 채무·세금 미납으로 가압류가 설정돼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광주시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달 안에 상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 확 줄입니다”

짐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구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다짐대회’에서 최영호 남구청장과 권용일 남구의회 의장, 박봉기 남부경찰서장, 오 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채용 뒤통’ 조선대교수 위증교사 징역형 추가

광주지법 집유 2년

교수 공채과정에서 ‘뒤통’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제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6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제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조선대 서모(61)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교수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서 교수의 제자 김모(36)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에게 위증하도록 사주하고,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로 하

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교수는 지난달 2일 교수 공채 과정에서 청탁성 ‘뒤통’을 받고 심사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구청장 후보 운동원

음식물 제공혐의 고발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후보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서구 모 식당에서 유권자 20여 명에게 5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철없는 모기 때문에 ...

초겨울 날씨에도 극성 ... 시민들 밤잠 설치

“기온이 부족 내려갔는데도 모기가 극성이어서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김모(27·직장인)씨는 최근 약국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구입했다. 밤이면 웅웅 거리는 모기 날갯짓 소리에 잠을 못이루고 있어서다. 사무실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업무 시간 달려드는 모기를 쫓아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26일부터 겨울날씨로 돌변했지만 ‘여름 불청객’ 모기가 제철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다.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평년에 비해 전체 모기 개체 수는 줄었지만 늦여름 더위와 지난주까지 가을철 이상 고온이 겹치면서

모기의 ‘소멸시기’가 한 달 이상 늦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10월 들어서도 낮 최고기온이 평균 22.9도에 이르는데다 최근 일일 낮 최고기온이 24도도 평년에 비해 2~3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날씨의 일교차가 커 외부의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몰려들어 개체수가 늘어나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조금 덥다고 느껴지면 실내 온도를 2~3도 낮춰야 모기 활동량이 줄어든다”면서 “아파트 저층에 사는 주민은 하수구에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해 모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가출 후배 여중생에 “죽여버리겠다” 위협

한달간 성매매 강요 화대 뜯어 ... 6명 입건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뜯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6일 생활비와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김모(15·광주 모 중학교 2년)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뜯은 혐의로 이모(17·광주 모 고교 1년)양 등 3명과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홍모(26·광주시 북구 동림동)씨 등 3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동네 후배인 김양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뒤 한 차례에 7~9만원 씩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의 화대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양과 연락, 자동차와 모텔 등지에서 김양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양 등은 지난 8월 4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골목길에서 한 시간 가량에 걸쳐 김양의 얼굴과 배를 때리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김양을 붙잡아 이양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아이디 주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홍씨 등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부산 에이즈 10대女 20여명과 성관계

10대 지적장애 여성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해운대경찰은 26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A(19)양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 3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9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에이즈 보건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으며, 지난 2월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건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친구집과 찜질방에서 지내던 A양은 생활비가 필요해 3명의 남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졌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권유했으나 남성들이 모두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20여명의 남성이 A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토막살해 경찰간부 감시 소홀

유치장 직원들에 ‘불문경고’ 경징계

경찰이 아내를 토막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경찰간부의 자살을 막지 못한 유치장 직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부서 유치관리팀 오모(57)경위 등 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경위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아내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김모(57)경위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7단계의 경찰공무원 징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계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 경찰 개인 포상점수에 1점이 감점될 뿐, 1년 이후에는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종된 김 경위 전처(前妻)의 행방 등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과실의 정도에 비해 징계 정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김 경위가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이미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자해를 제지하지 못한 직원들을 경징계한 것은 ‘제 시구 감싸기’란 의혹을 사고 있다.

징계위는 당초 오 경위 등에게 불문경고의 바로 위 단계인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당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살시도가 워낙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유치팀이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53) 김장두

10년래 처음 10월 한파주의보

이유가 뭐냐? / 김장두

혹시, 설렁한 소리 때문에 아냐까?? / 김장두

4대방이 안동되면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다

영산강 경지사업 ‘뒤통’

농어촌공사 간부 영장

광주광산경찰은 25일 영산강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소속 김모(53·3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관계자 김모(45)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산강사업계획 담당부서 팀장인 김씨는 지난 6월에 용역업체 관계자인 김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아채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뇌물 사용처와 뒷선 상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고 교사가 학생들에 음란 메시지

○...서울시내 한 여고 학생들이 “담임교사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26일 서울 모 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윤리교사 송모(29)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의 반 학생 A(16)양을 교무실로 불러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하고, ‘와이프가 집을 비웠으니 우리 집으로 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하반신을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는 것.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진상조사를 통해 송씨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한 뒤 직위해제했다. 진술서에서 송씨는 “A양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